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소통을 위한 유쾌한 시도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2005 전국시 민운동가대회'가 강원도 평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440여 개의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아름다운재단, 시민의 신문,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의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연합단체들 모두의 축제 의 장이 될 것이다.

2004년 제4회 대회에서는 'NGO와 기업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해 기업과 NGO의 적극적인 소통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올해 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NGO-재단-기업의 유쾌한 만남II'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의 유쾌한 만남은 그 준비부터 유쾌한 시도와 노 력이 담겨 있어, 그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한다.

건강한 관계 속 세 단체의 만남

이번 대회는 기업과 NGO 활동단체들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재단들-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기업사회공헌네트워크에 지원을 요청하여 10여 개의 기업이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시작부터 유쾌한 동력이 실패 수 있었다. 기업사회공헌네트워크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실무자들의 네트워크로 오랜 기간의 만남과 토론, 고민의 공유,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 등을 통하여 형성되고 다져지면서 건강한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NGO-재단-기업의 유쾌한 만남 II'는 일방적인 발표와 토론 으로 그치는 워크숍 형식보다는 서로의 의견과 바람을 세 주체들이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유쾌해질 수 있는 만남을 마련하고자 함께 준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크는 한 개인을, 한 기업을 평가하는 가능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네트워크 간의 소통 또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들을 찾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가 원하는, 가장 갈급한 부문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회에 서 가장 긴급하게 원하는 바를 중요한 아젠다로 이슈화하여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NGO의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민간자원을 투명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모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 하게 지원하는 것은 민간재단들의 최대의 미션이다. 이 세 주체들이 마음과 역할을 모아 공통의 고민과 무너뜨려야 할 벽을 마주하여 상 생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마 주 하 는 것 이 대 화 의 열 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자주 듣는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주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 화의 열쇠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듣기 위 한 준비는 단혀 있는 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마주볼 준비를 하고 있다. 들을 준비 가 많이 되어 있는 주체는 그만큼 마음을 열고 마주할 것이다. 열려 있는 만큼 들을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은 스스로를 여는 연습을 해야 할 때이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해 마주보고 있는가?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가?

아직 다 열지 못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